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치유센터, 사계절 체험형 치유 관광지로 주목

5.8km 숲속 무장애산책로 걷고 황토 찜질하는 힐링 명소

보성군이 직접 운영하는 제암산자연휴양림과 전남권환경성질환경관리센터(이하 치유센터)가 사계절 웰니스 관광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제암산 일대 160ha에 조성된 '제암산자연휴양림'은 아름드리 편백·삼나무 숲을 따라 해발 500m까지 이어지는 5.8km 무장애산책로(데크길)를 갖추고 있다. 경사와 계단이 없어 장애인 휠체어와 유모차 이용이 가능해 전 연령층이 안전하게 숲을 체험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2025년 개통한 1.0km 숲속맨발길은 소나무 숲과 계곡을 따라 조성돼 사계절 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휴양림과 연계 운영되는 '치유센터'는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한 체류형·체험형 치유 시설로 설계돼 이용객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동시에 도모한다. 실내의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숲 체험과 전문 치유 프로그램을 연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센터 내 주요 시설로는 ▲환경성질환경예방 상담 및 기초검진실, ▲환경·건강 교육 회의실, ▲친환경 음식·천연제품 체험교육실, ▲명상·요가·다도 체험이 가능한 치유명상실, ▲심신 이완을 돕는 황토찜질방과 녹차탕 등이 있다.

운영 프로그램은 총 11종으로 ▲녹차오란다 만들기, 김장 체험 등 친환경 식생활 체험 ▲주방 세제·비누 만들기 등 천연제품 만들기, ▲차 명상, ▲힐링 요가, ▲다도, ▲목공예, ▲숲 체험 등이 포함된다.

시설 이용료는 ▲찜질방 7,000원, ▲녹차탕 어린이 7,000원, 성인 10,000원이며, 체험료는 ▲친환경 음식 10,000~15,000원, ▲천연제품 10,000~25,000원, ▲차 명상 15,000~20,000원, ▲힐링 요가 교실 10,000원, ▲다도 10,000원, ▲목공예 30,000원이다.



센터 주변에는 숲과 자연경관을 활용한 외부 휴식 공간이 조성돼 있어 실내 프로그램과 자연 치유가 연계된다. 또한 전 시설에 친환경 자재를 적용하고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준수해 환경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군 관계자는 "제암산자연휴양림과 전남권환경성질환경관리센터를 전국 최고의 산림휴양시설로 제공하기 위해 이용 측면을 고려한 지속적인 시설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보성/김은기 기자

장성군이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3월 13일까지 연다.

이번 공모전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군민 불편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분야는 △복잡한 행정 절차 및 비효율적 행정 운영 △사회 배려 대상, 복지, 의료 등에 관한 규제 불편사항 △소상공인·기업 활동 저해 규제 등이다. 단 △과과징금, 과태료, 조세 부과·징수 등 비규제 항목 △단순 건의·진정 등 민원

장성군 "불합리한 '규제 문턱' 국민이 낮춥니다"

행정, 복지, 기업 활동 등 분야별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제도 △타 기관 유사 공모 채택사항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참여 방법은 장성군 누리집에서 공모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jis719660@korea.kr)로 전송하거나 기획

실 법무통계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역 주민은 물론 전국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장성군은 실현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계속성 등을 기준으로 공모작을 심사해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상 결

과는 개별 통보와 함께 장성군 누리집에 게시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접수된 제안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는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누리집 또는 기획실 법무통계팀(061-390-721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성/황해연 기자

담양군, 인공지능·사물인터넷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참여자 모집

담양군(군수 정철원)이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비대

면으로 어르신들의 맞춤형 건강관리를 돕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흡연, 잦은 음주, 불규칙적인 생활, 신체활동 부족 등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하고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한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올해는 장기요양등급자도 참여 대상에 포함됐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손목 활동량계, 체성분 측정기, 혈압계, 혈당계 등 개인별 건강 상태에 필요한 측정 기기(1~2개)를 무료로 대여받을 수 있으며, 사전 건강 상태 확인(선별 검사)을 통해 전문가의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게 된다.

군은 사업 기간 건강관리 목표를 성공

적으로 달성한 참여자에게 소정의 보상(격려품)을 제공해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신청은 전화 또는 보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모집 인원 150명이 채워질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정보기술을 접목한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더욱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영광군은 수소경제 활성화와 대기환경 개선,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2026년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통해 군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수소전기자동차 승용차 4대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 차종은 현대자동차 '디 뉴 넥

영광군,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친환경 이동수단 확산으로 탄소중립 실현 앞장

쏘'로, 1대당 총 3,500만 원의 구매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 가운데 국비 2,250만 원, 도비 500만 원, 군비 750만 원이 포함돼 수소전기차 구매에 따른 군민 부담을 크게 낮췄다. 신청 기간은 2월 5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영광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개인사업자, 영광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으로 진행되며,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수소전기차는 차량 등록일로부터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타 지역 전출이나 매매 시에는 보조금 환수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지역 내 친환경 차량 운행 확대를 위한 조치다. 영광/이현식 기자



고흥군 고품물, 설 마지막 장보기 최대 50% 할인 2월 6일~9일, 라스트 댄스? 노! 라스트 찬스! 기획전 운영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운영하는 온라인 농수축특산물 쇼핑몰 고품물은 설 명절을 앞두고 마지막 장보기에 나선 소비자들을 위해 2월 6일부터 9일까지 설 마지막 장보기 기획전을 운영한다.

이번 기획전은 명절 직전까지 바쁜 일상으로 장보기에 여유가 없었던 소비자를 겨냥해 "라스트 댄스? 노! 라스트 찬스!_출출 시간없음, 장 볼 시간임"이라는 유쾌한 콘셉트로 기획됐으며, 설 상차림에 필요한 고품산 농수축특산물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기획전 상품으로는 소고기, 반건조생선, 굴, 꼬막, 문어 등 제철 수산물과 신선 과일, 채소 등 설 준비에 꼭 필요

한 핵심 품목을 대거 준비했다. 특히 산지 직송 체계를 기반으로 신선도를 엄격히 관리하고 명절 배송 일정에 맞춘 신속한 출고로 소비자가 명절 전 안심하고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고흥물 관계자는 "아직 설 장보기를 마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짙고 강력한 마지막 기획전을 준비했다"며 "필요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빠르게 구매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보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품물은 산지 직송 기반의 품질 관리와 맞춤형 기획전을 통해 재구매율을 꾸준히 높이며 지역 대표 공공 온라인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품/박도일 기자

광양시, 2026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미세먼지 저감 위해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한 물량 지원

광양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내연기관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차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2026년 지원 예산 물량은 전기승용차 500대, 전기화물 50대로, 관련 지침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눠 보급할 예정이다. 해당 물량은 전년 전기승용차 기준 약 40% 증가한 규모로, 수송 분야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추진될 예정이며, 1차 모집은 2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2차 모집은 예산 여건 등에 따라 하반기 중 추진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1대당 최대 969만 원, 전기화물(소형) 1대당 최대 2,030만 원으로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며, 지원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된다.

특히 올해는 전환지원금이 새롭게 도입됐다. 개인을 대상으로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전기차로 교체(판매 또는 폐차)하는 경우, 최대 130만 원(국비 100만 원, 지방비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 다자녀가구, 전기택시, 소상공인,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금도 함께 마련됐다.

지원 자격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해 광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기관이다. 보조금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https://www.ev.or.kr)에서 신청 가능 차종을 확인한 뒤 전기차 제조·판매 대리점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 시에는 국제·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이 없어야 하며, 차량 기준 가액 산정에 따라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일부 복지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광양/신선호 기자

